

이야기가 있는 풍경



학부모
배 미 화님

작년 이맘때쯤 어떤 중학교를 보내야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. 그런데 마침 올해부터 중학교군과 중학교로 나뉘어 흔히 말하는 시골학교에도 지원이 가능해 졌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오랜 고민 끝에 '옥구중학교' 를 선택하여 원서를 냈습니다. 주변사람들의 첫 반응은 "왜? 굳이?" "버스로 한 시간 가량 통학을 해야 하는데? 매일 등하교는 어떻게 시킬 건데?"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. 아이를 통학시킨다는 게 '맞벌이'라는 상황에서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이 당연하다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, 복직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여리고 민감했기에 상처도 많이 받고, '학교가기 싫다'라며 종종 언급했던 아이를 생각하니 "그까짓 고생쯤이야~"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드디어 2018년 3월!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저 있던 아이가 친구들 하나 없는 옥구중에 입학해 '잘 할 수 있을까?'하는 걱정 반, 차라리 잘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첫 단추부터 바르게 끼워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. 그것도 잠시 매일 학교를 오가며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아이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되었고,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주는 아이를 보며 "잘했다!" 싶었습니다. 이제는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... 남은 기간도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래봅니다.



재학생
김 민 찬군

안녕하세요?
저는 시내 초등학교에서 옥구중학교에 진학한 학생입니다.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. 시내중학교에 진학해 많은 아이들과 경쟁하며 공부에 몰두해 학창시절을 보낼지 옥구중에 와서 많은 체험을 하며 즐겁게 중학생 시절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2학년이 된 지금, 그 결정에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. 혁신학교인 우리학교에서 많은 체험활동을 하여 진로를 찾기도 했고, 시골학교인 장점을 살려 다른 시내학교와는 차별화된 사제동행, 가꿈이 등 여러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여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, 학생수가 많지 않아 친구들끼리 모르는 일이 없고 폭력이 없어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들과도 가족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. 또한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남짓이라 우리는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, 선생님들께 열정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시내에서는 꿈같은 일이죠. 여러분도 옥구중학교에 오시면 후회없고 유익한 중학생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

학교 시설 및 환경

돌봄이 가능한 적절한 규모

학급 \ 연도	16년	17년	18년	19년
1반	16	15	16	(20)
2반	16	16	18	(20)
계	32	31	34	(40)

현대화·특화된 교육시설 및 휴식 공간

- 상상공작소(목공실)
- 체력단련실(헬스기구)
- 제과제빵실, 정보화실
- 옥상 하브루타 광장
- 뮤지컬실, 락밴드실, 텃밭
- 야외정자, 구름다리
- 도서실(카페시설), 자치실
- 백마산 가는 오솔길 (바람개비동산)



옥구중학교

(54061)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60
교무실 063) 451-2946 행정실 063) 451-2906
교장실 063) 451-4828 팩 스 063) 451-669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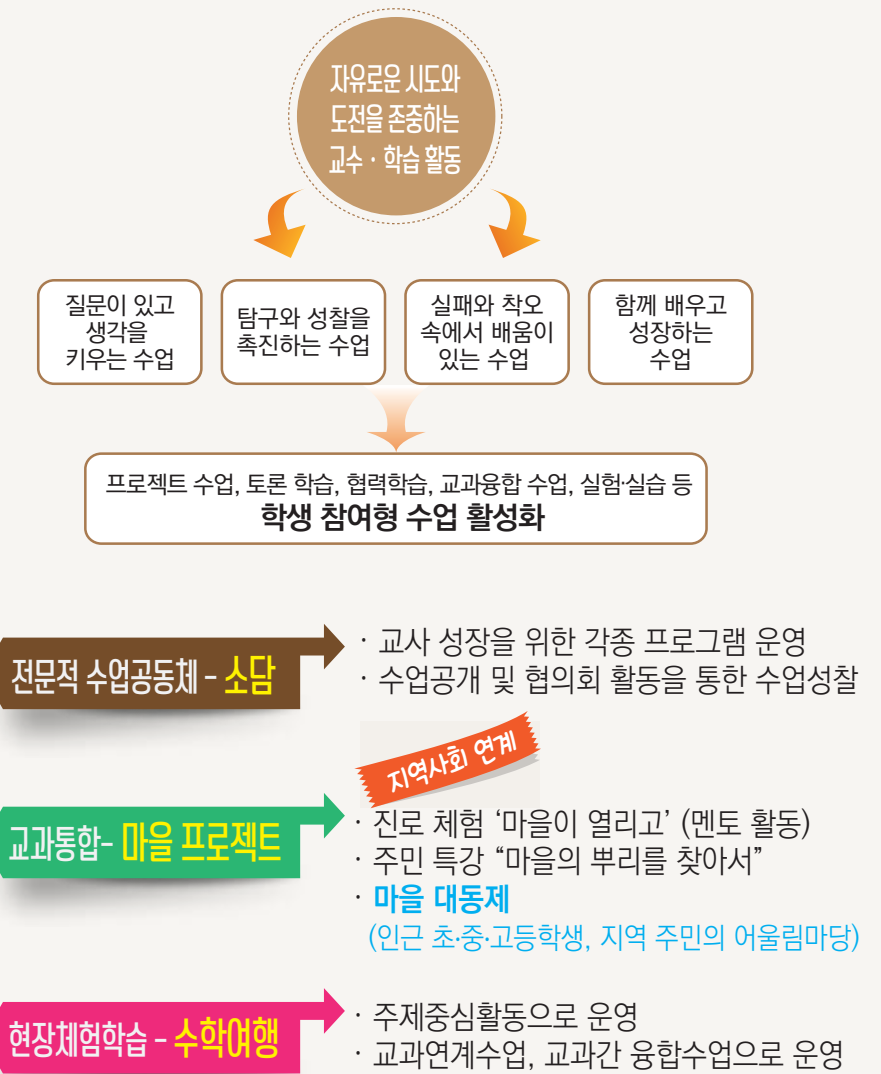
성장이 있는 혁신학교



나를 존중하며
남을 배려하는
아름다운 사람

옥구중학교

삶의 이야기가 배움이 되는 수업 혁신 교육과정



- 디지털 수업 인프라 구축
 - 1인 1노트북, 1인 1스마트패드 수업 가능
 - 각 교실 와이파이 구축
- ※ 2019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
- 방과후 화상영어 수업 - 원어민 교사와 실시간 회화
- 방학 프로그램
 - 독서교실 및 문학기행, 과학 캠프, 영어 캠프

옥구중학교는 2015년부터 꼭~ 혁신학교입니다.